



파키스탄 양질의 일자리 현황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 개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은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그램(Decent Work Country Programmes, DWCP)을 설계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국가 개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국가 프로파일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작성되며,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국가 개발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은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가용 데이터, 통계, 법정 지표, 최신 경향 분석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잘 정리된 양질의 일자리 지표는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DWCP 및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란?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는 빈곤을 줄이고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일자리 창출 - 투자, 기업가정신,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는 경제 구축 2. 권리 -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인정 및 존중 3. 사회적 보호 -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 소득 보호,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4. 사회적 대화 - 강력하고 독립적인 근로자/사용자 단체를 통해 갈등을 피하고, 조화롭고 생산적인 기업 문화 창출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된 MDG 목표 1b에도 포함되어 있다: ● 노동 생산성 증가율 ● 인구대비 고용률 ● 근로빈곤층 비율 ● 취약한 고용 비율

요약

(자료 기간: 2002-13)



- 파키스탄의 고용은 농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 인구 중 농업은 43.3%, 서비스업은 42.2%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은 모든 여성 근로자의 4분의 3을 고용하고 있으며, 발루치스탄 주 근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15세 이상 성인의 문해율은 2002년 46.5%에서 2013년 56.2%로 증가했으며, 2013년 기준 남성 문해율은 68.6%인데 비해 여성 문해율은 43.5%에 그치고 있다.
- 국가에서 정한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율은 2002년 34.4%에서 2011년 12.4%로 줄어들었다.
- 비농업 부문에서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63.8%에서 2013년 73.3%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 생산성이 낮은 비공식 고용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2002년 40.4%, 2010년 36.5%), 12년간의 조사 대상 기간 중 무급 가족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2002-13년 동안 18.8%에서 24.2%로 증가). 주 별 통계를 보면, 신드 주와 파크툽와 주가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42.3%, 40.4%), 자영업 및 무급 가족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발루치스탄(2013년 기준 자영업 42.1%, 무급 가족 근로자 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업률은 2002-0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7-08년에 5%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3년에 6%로 다시 상승했다. 여성, 도시 주민, 파크툽와 주에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2002년 13.4%에서 2007년 7.5%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후 다시 증가해서 2013년에는 10.5%를 기록했다.
-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 실질 소득은 2002년 3,387 루피에서 2011년 4,037 루피로 상승했으나, 2012-13년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소득은 남성 근로자 소득의 64%에 그치고 있다.
- 일일 소득 1.25\$ 미만의 근로빈곤층은 2005년 18.7%였으며, 기준을 2\$로 올릴 경우 55.3%까지 크게 증가한다.
-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2002년 22.3%에서 2013년 38.7%로 증가했지만, 그 대부분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에서 무급 가족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 근로자 대비 소득 수준도 낮다.
- 노동감독체계가 부실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준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 감독관의 수는 2001년 293명에서 2012년 337명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비농업 부문 공식 경제에 고용된 근로자 25,000명 당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빈곤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베나지르 소득 지원 프로그램(BISP)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 기반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여전히 낮으며,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적용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는 2002~10년 동안 545,800명에서 823,900명으로 증가했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사용자 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수는 2001년 518개에서 2013년 556개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 맥락

2008년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빈곤 수준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고용은 여전히 서비스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 생산성은 2008년까지는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정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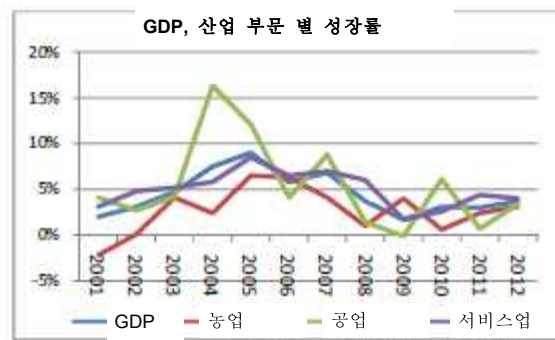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08년 국제 식량 및 연료 가격 폭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비율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억 8435만 명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최근 몇 년간 파키스탄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낮은 투자 수준, 내부 갈등 등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기 침체 이전까지 파키스탄은 2002~07년 동안 연 평균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소득도 1,875\$에서 2,329\$로 증가했다. 2008년 초기 발생한 세계적인 식량 및 연료 가격 폭등은 파키스탄 거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2008~2012년 파키스탄의 성장률은 평균 3%로 크게 감소했고, 1인당 GDP도 2012년 기준 2,491\$로 정체되었다. 2007년까지 한자리 수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인플레이션도 2008년 이후 두 자리 수로 증가했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년에는 21%까지 증가했다.



출처: 파키스탄 경제 조사(Pakistan Economic Survey)

사회적 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며, 성별 격차도 큰 편이다. 2012년 기준 초등학교 등록률은 57%에 그쳤으며, 2013년 기준으로 5~17세 아동의 31%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성인 문해율은 56.2%이다. 평균 기대 수명은 2011년에 66.3세 이었다. 영아 사망률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2000~2012년 사이에 각각 출산아 1000명 당 69.3명, 85.9명으로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의 피임실천율(CPR)은 2001~03년에 상승했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8년 27%를 기록했다.

2010년 의회에서 제18차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방 및 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변경되었다. 헌법 개정에 따라 연방 정부가 담당하던 교육, 보건, 인구 및 사회 복지, 노동 행정 업무가 주 정부로 이관되었다.

주요 수치

US\$ 2,491

1인당 GDP - PPP(2012)

12.4%

국정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2011)

31%

학교를 다니지 않는 5~17세 아동 비율 (2013)

0.1%

HIV 보균자 비율 (2012)

출처: 세계 개발 지표, 노동 인구 조사; 파키스탄 사회/생활수준 조사

노동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참여율은 특히 파크툽크와 주와 발루치스탄 주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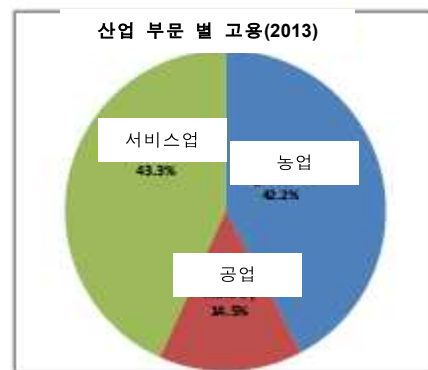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비공식 고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고 있지도, 취업을 하지도 않은 청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 기회

파키스탄의 고용은 농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 인구 중 농업은 43.3%, 서비스업은 42.2%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주는 발루치스탄 주로 2013년 기준 근로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공업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주도 발루치스탄 주로, 이 주의 공업 인구 비중은 단 6.5%에 그치고 있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파크툽크와 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주의 전체 고용 인구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3년 기준으로 55%이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고용률(EPR)은 2001년 47.8%에서 2013년 51.3%로 증가했다. 펀자브 주가 가장 높았으며(53.7%), 파크툽크와 주가 가장 낮았다(41.8%). 그러나 성별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용률은 79.5%지만 여성 고용률은 22.8%에 불과하다. 노동참여율(LFPR)은 2013년 기준 54.6%로 증가했지만,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의 30%에 그치고 있다. 노동참여율의 남녀 간 격차는 2002년 68.8%에서 2013년 58.8%로 줄어들었다. 노동참여율이 가장 높은 주는 펀자브 주, 신드 주이며, 가장 낮은 주는 파크툽크와 주, 발루치스탄 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실업률은 감소했으며, 남성보다 여성 실업률이 더 크게 감소했다.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했다. 2013년 기준 비농업 고용의 4분의 3 가량이 비공식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2002년 13.4%에서 2007년 7.5%로 크게 낮아졌으나, 그 후 다시 높아져서 2013년에는 10.5%를 기록했다. 교육을 받고 있지도, 취업을 하지도 않은 청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 수치(2013)

10.5 %

청년 실업률

31%

교육을 받고 있지도, 취업을 하지도 않은 청년의 비율

7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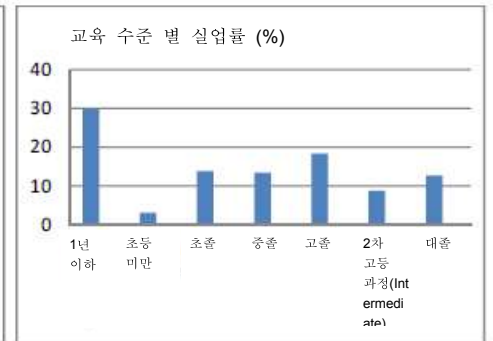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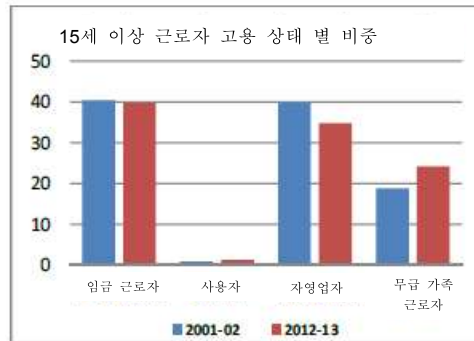
비공식 고용 비율

60.1%

비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 비율

출처: 노동 인구 조사

노동 생산성은 2002년 99,235 루피에서 2008년 115,991 루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13년 기준 73.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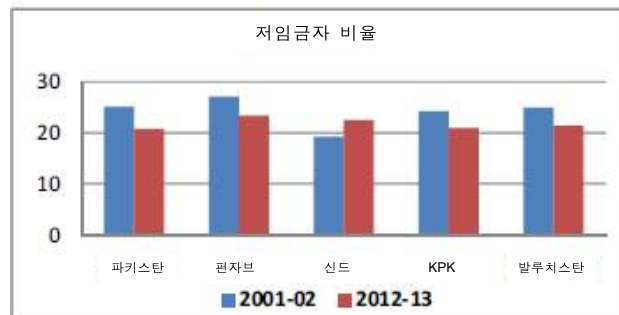
월평균 실질소득은 증가했으며, 저임금자 비율은 감소했다.

충분한 소득과 생산적인 근로

임금 근로자 월평균 실질 소득은 2002~08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했다가 2008년 이후 조금 감소했다. 저임금자 비율은 2002년 25.2%에서 2013년 20.8로 줄어들었다. 평균 시급은 모든 직업군에 걸쳐서 상승했으며, 시급이 가장 높은 직업군(국회의원, 고위 임원, 전문직)과 가장 낮은 직업 사이의 격차도 줄어들었다. 시급이 높은 직업군 내에서는 여성의 시급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2012-13년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4%에 불과하다. 저임금자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2002~2013년 사이에 조금 증가했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의 비율도 증가했지만, 공식 고용의 비중은 감소했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같은 기간 동안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의 비율은 다소 증가했으나 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자체의 시행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주요 수치

18.7% (일소득 1.25\$ 기준)
& 55.3 % (일소득 2\$ 기준)
근로빈곤층 비율 (2005)

4,037 루피

월평균 실질 소득 (20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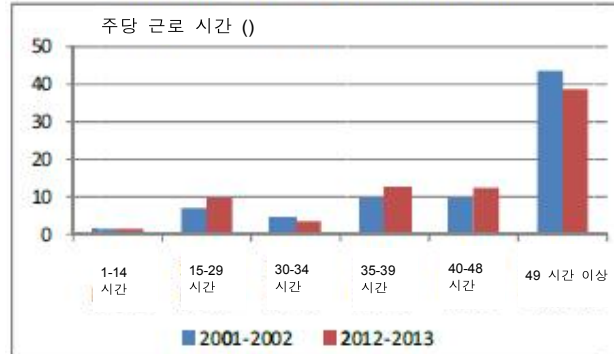
최근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2013)

출처: 세계 개발 지표, 노동 인구 조사

적절한 근로 시간

초과 근무(주 48시간 초과)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2~13년 동안 43.6%에서 38.7%로 감소했으며, 초과 근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2013년 기준 10% 미만이다. 이 비율은 신드 주, 자영업자, 사용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상 근무 시간(주 35~48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02~13년 사이에 조금 늘어나서 2013년 거의 5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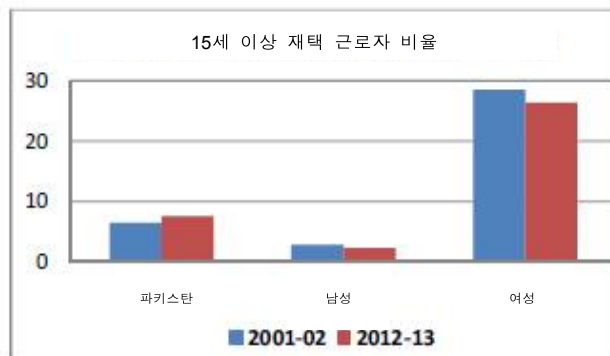
불완전 취업 근로자(주당 35시간 미만)의 비율은



출처: 노동 인구 조사

일, 가족 개인적 삶의 조화

지난 20년간 도시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도 변화를 맞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대다수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일과 가사 노동의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를 다소 완화시켜 주고 있기는 하다. 근로자 중 가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주요 수치 (2013)

38.7 %

초과 근무 근로자 비율

0.85 %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

출처: 노동 인구 조사

2013년 기준 15%로 조금 늘어났으며, 특히 시골 지역 근로자 중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18.2% vs 7.5%).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률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전체 고용인구 중 1% 미만), 조사 대상 기간 중 파악된 불완전 취업의 주된 원인은 자발적 불완전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치 (2013)

69.9 %

근로자 중 기혼자 비율

45.2 %

근로자 중 가장의 비율

출처: 노동 인구 조사

초과 근무 근로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

불완전 취업자(주당 근무 시간 35시간 미만)의 비율은 약간 상승했다.

불완전 취업의 주된 원인은 자발적 불완전 취업이며,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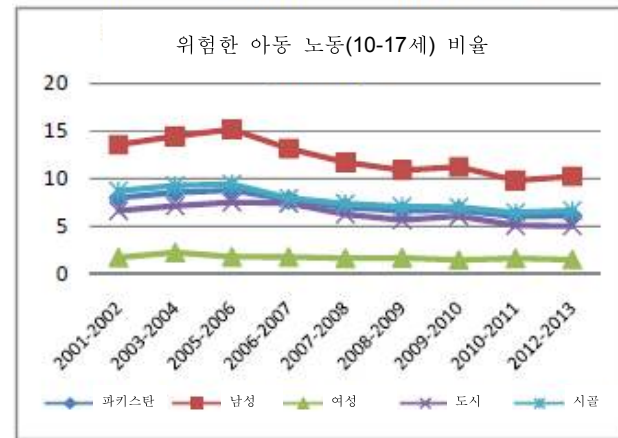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은 기혼자이며, 일과 가사 노동의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려져야 할 근로 형태

10~14세, 10~17세 아동 노동에 관한 가용한 자료를 보면 아동노동의 비율은 2005년 기준 10~16%이며, 2005~13년 사이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 아이, 발루치스탄 주, 신드 주에서 아동 노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 10~17세 아동 평균인 21%보다 높게 나타남).

파키스탄은 아동 노동,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위험한 아동 노동과 관련된 국제 협약의 비준국이다. 파키스탄은 최저임금 협약 1973(138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출처: 노동 인구 조사

근로자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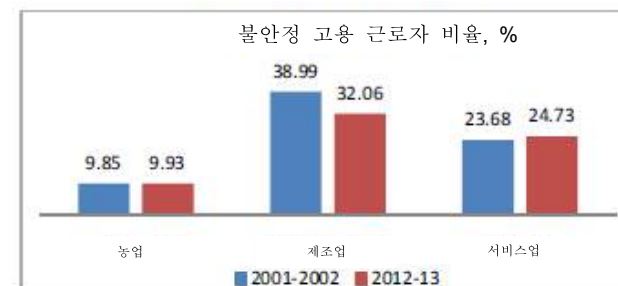
남자 아이, 발루치스탄 주, 신드 주에서 아동 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안정 고용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그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임시직 근로자 소득의 성별 간 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직업 안정성

불안정한 고용(임시직, 성과급)의 비율은 2002년 20.1에서 2011년 16.6%로 감소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경제가 활기를 띠던 2001~08년에 증가했지만, 성별 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현행 법령은 공식 부문에 속한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주요 수치 (2013)

10 %
아동 노동 비율(10-14세)

15.8 %
아동 노동 비율(10-17세)

출처: 노동 인구 조사

1999 (182호), 강제노동협약 1930(29호), 강제노동철폐협약 1957(105호)을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위험한 아동 노동,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료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주요 수치 (2013)

19.5 %
불안정 고용 근로자 비율

63.4 %
불안정 고용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 비율

3,018 루피
임시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 소득

출처: 노동 인구 조사

동등한 기회 및 처우

2001~13년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관련 조사 분야 중 이 분야는 특히 거의 발전이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고위 임원,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이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2013년 기준 전체 여성 근로자 중 66%)은 여전히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그 밖에도 여성 대상 교육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여전히 상당한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주요 수치 (2013)

7.9 %

고위, 중간 관리직 중 여성 비율

9.9 %

비농업 부문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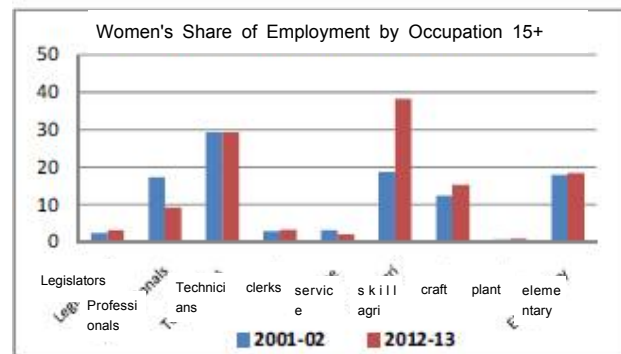
37.5%

성별 임금 격차

출처: 노동 인구 조사

국회의원, 고위직 임원,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공평한 기회와 처우를 위해서는 여성 대상 교육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비사망 산업 재해 발생률과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근로 환경

비사망 산업 재해율은 2009~13년 사이에 증가해서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 정부 기록(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을 근거로 한 업무 관련 사망자 자료를 보면, 불충분한 집행 및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준수되지 않으면서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식 부문에서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수는 2001년 293명에서 2012년 337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여전히 비농업 공식 부문 근로자 25,000 명 당 1명에 그치는 숫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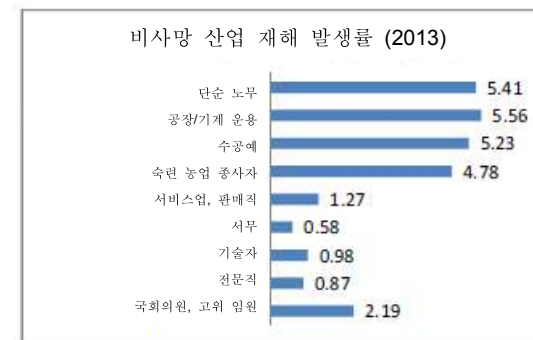
주요 수치 (2013)

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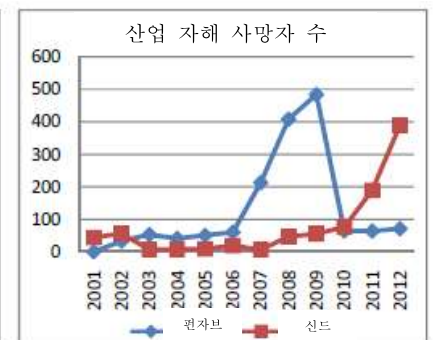
비사망 산업 재해 발생률

출처: 노동 인구 조사

취약한 집행 및 감독 체계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법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주 정부 노동부서 행정 기록



사회 보장

제한된 가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사회적 보호의 범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개선된 분야는 대부분 극빈층과 가장 취약한 계층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과 연계된 사회 보장의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사회 보장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어났다. 지출 증가는 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식품 보조, 공공사업 프로그램, BISP를 통한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적 부조의 증가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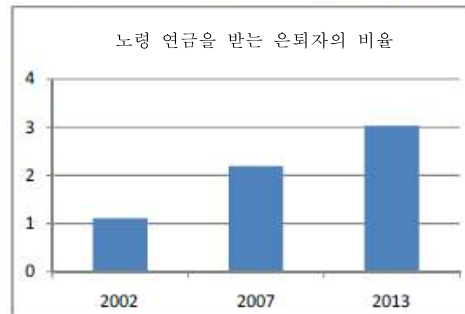
개인의 의료비 부담 비율은 2006년 68%에서 2010년 60.6%로 거의 8%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식 부문 근로자의 다수, 그리고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전부,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는 여전히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과 연계된 사회 보장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비공식 부문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 부문 종사자들이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집단으로 남아 있다.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 부문 근로자 중에서도 비중이 낮은 편이다.

주 정부 노동부서의 행정 기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의 진전 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출처: 노동 인구 조사, 파키스탄 경제 조사



사회적 대화, 사용자/근로자 대표

주 정부 노동부서의 행정 기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의 진전 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용한 자료를 보면, 노조 가입률은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다. 2001~03년에는 노조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해서 2003년 503,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그 후 계속 감소해서 2008년에는 245,383명에 그쳤다. 노조 가입자의 거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주 정부 노동부서의 기록을 보면 2001~12년의 기간 동안 편자브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노조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조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주는 2012년 기준 50,600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신드 주이다.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는 2001~2010년 동안 545,800명에서 823,900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편자브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사 분쟁 발생 건수도 2001~07년 동안 증가했지만, 2008년 이후로는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노사 분쟁에 참여한 근로자 수와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 중단 일수는 200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참가자 수 8,000~11,000명, 근로 중단 일수 85,000~103,000 인일(人日))

주요 수치 (2013)

60.6%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비율 (2010)

9.4 %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 (2013)

출처: 노동 인구 조사

주요 수치 (2013)

245,383
총 노조가입자 수(2008)

693,573 - 편자브
96,102 - 신드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2012)

556
사용자 단체에 소속된 기업의 수(2013)

출처: 주 정부 노동부서



양질의 일자리는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제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우려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연대를 통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ILO 회원국 정부, 사용자, 근로자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2008)은 “필요하다면 ILO의 지원을 받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또는 통계를 작성할 것”(Para. II.B ii)을 회원국들에게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는 생산적인 정규직 고용,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촉진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ILO는 2008년 9월 양질의 일자리 측정에 관한 국제 노사정 전문가 회의(TME)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지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동년 12월에 열린 제18회 노동통계전문가국제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ILO 사무국은 제한된 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을 시범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시험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은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의 4대 전략 기둥(생산적인 정규직 고용, 노동권,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촉진)에 상응하는 11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i) 양질의 일자리의 경제적, 사회적 맥락, (ii) 고용 기회, (iii)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인 업무, (iv) 적절한 근로 시간, (v) 일, 가족, 개인적인 삶의 균형, (vi) 폐지되어야 할 노동 형태, (vii) 고용 안정성, (viii) 동등한 기회 및 처우, (ix) 안전한 근로 환경, (x) 사회 보장, (xi) 사회적 대화,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따라서 국가 프로파일은 가용한 모든 통계, 법정 지표를 담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관련 자료의 경향, 진전, 한계를 다루고 있다.

국가 프로파일의 목적은 정책 결정자들과 개발 실무자들이 양질의 일자리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적인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은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그램(Decent Work Country Programmes, DWCP)을 설계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국가 개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국가 프로파일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작성되며,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국가 개발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은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가용 데이터, 통계, 법정 지표, 최신 경향 분석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잘 정리된 양질의 일자리 지표는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DWCP 및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파키스탄 양질의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2002~2013년을 대상으로 국가 노동, 사회 정책에 포함된 통계 및 법정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관련 주요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파일은 파키스탄의 양질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양질의 일자리 그 자체와 그 측정 방법에 관한 진전 상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국가 정책 및 개발 계획 수립에 양질의 일자리 관련 항목을 반영하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도 이 프로파일의 목적 중 하나이다.

양질의 일자리 진행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도 이 프로파일의 목적에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

해외동포및인적자원개발부
(Ministry of Overseas Pakistani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lock B, Pak Secretariat
Islamabad
Tel: 051-9103861-9103984
Fax: 051-9203462

ILO 파키스탄 사무국
ILO Building, Sector G/5-2
Near State Bank of Pakistan
Islamabad
Tel: 051-2276456-8
Fax: 051-2273181
Email: Islamabad@ilo.org
Website: www.ilo.org/Islamabad